

이론적 '포장지식' 통해 포장전문가 필터

최 선 영 / 동일알루미늄(주) 품질관리과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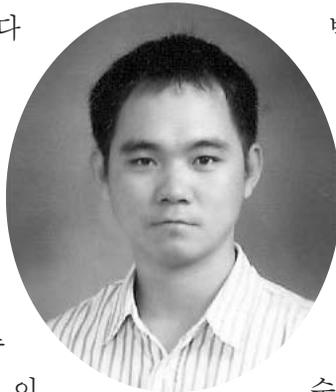
“첫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짧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배운다는 마음으로 포장기술관리사에 응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1주간 같이 고민하고 고생했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학습기회를 주신 동일알루미늄 현석원 부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동일알루미늄(주) 품질관리과 최선영 씨가 1백점 만점에 93.7점을 획득, 1등으로 수료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해 2월 공주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최선영 씨는 2005년 12월, 동일알루미늄에 입사, 품질관리과에서 수입검사 및 공정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11주간의 교재를 받고 방대한 양에 당황했다”는 그는 “전공이나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트에 대한 리포트 부분에 있어서는 교재를 아무리 정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어서 과제물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주



변의 독려와 응원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최선영 씨. 그는 대부분의 피교육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이나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선영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포장”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연포장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회사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장이라는 것이 제품의 상태나 품질에 대한 보호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종 완제품의 상태 및 품질 그대로 고객에게 전해지기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포장기술관리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포장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전하는 최선영 포장기술관리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통신교육 통해 고품질 포장재 생산 주력

김 남 영 / 동일알루미늄(주) 품질관리과 차장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한 제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심사 결과, 동일알루미늄(주) 김남영 차장이 91명 가운데 2등으로 수료, 우수성적수료자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현석원 부회장과 임직원의 격려 속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이 수강한 동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91년 7월 동일알루미늄(주)에 입사한 이후 약 16년간 생산부서에서 근무를 해 온 김남영 차장은 올해 4월 품질관리과 차장으로 승진하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품질관리과 부서장으로서, ISO관련 업무를 비롯한 A/S, B/S 업무 및 공정, 출하 검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보다는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그는 교육을 통해 그동안 쌓아왔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지식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10여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의 포장 업무



노하우로 인해 통신교육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던 김남영 차장은 통신교육 교재에 제품의 실질적인 용도에 대한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인쇄 기법 등은 실질적인 용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광범위한 설명보다 간단한 예제 같은 것이 있었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금번 7기만 해도 1, 2등 우수수료자가 모두 동일알루미늄(주) 재직자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자 가운데는 동일알루미늄 직원들이 우수수료자로 수상하는 일이 많았다.

김남영 차장은 “품질관리과 5명 중 4명이 포장기술관리사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포장기술관리사의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포장재료 제조업체로서 우수한 품질의 포장재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실천하며 포장기술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김남영 차장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